

김 미 숙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교과서 활용실태 조사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주 영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교과서 활용실태 조사연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주 영

인 준 서

김주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현 경 실 인

심사위원 김 미 숙 인

심사위원 연 상 춘 인

2005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이 연구는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음악교과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서울 소재 24개 학교 43명의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배경, 교과서의 선정, 교과서의 활용, 교과서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교사들이 사용해본,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를 출판사에 따라 조사한 결과 두산과 세광음악출판사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용빈도가 높은것은 그만큼 교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사들은 교과서 선정에 있어 교과서 내용 자체를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의 적절성·독창성, 외형체제의 화면구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교과서의 선정 기준과, 교과서 지향 목표는 곧 교과서의 바람직한 집필 방향에 부합되는 내용들이다.

셋째, 실제 수업에서 교과서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과서의 지도 순서, 지도 내용의 선택, 교과서 외의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등에 있어 교사들은 필요에 따라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서출판태성을 제외한 8종의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 정도는 대략 50-90%이다. 8종의 교과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이므로 교사들의 의견은 분산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각 문항들에 대한 교사들의 이러한 평가를 종합하면 현재의 교과서는 검정 기준에서 요구하는 교과서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교과서는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 평가를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나 사회의 요구, 학습자의 요구가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필자의 재량을 최대한 가능하게 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구성되어 실제 수업에서의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로, 효과적인 학교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교과서	5
1. 교과서의 의미	5
2. 교과서의 기능	7
3. 교과서의 내용	8
4. 교과서의 활용	10
5. 교과서의 체제	13
6. 교과서의 채택	20
7. 교과서의 외형체제	20
8. 중학교 음악교과서	22
III. 교과서 활용 실태 조사	29
1. 연구 방법	29
2. 조사 결과 및 논의	31
IV. 결론 및 제언	60
참고문헌	63
ABSTRACT	65
부록	67

표 목 차

<표 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용 도서의 검정 절차	17
<표 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용 도서의 검정 연차 계획	17
<표 3>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구분	19
<표 4>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외형체제 요소	21
<표 5> 검정 대상 음악과목의 변천	22
<표 6> 교과서 검정 과정의 준거 및 참고자료	23
<표 7> 중학교 교과서의 공통 검정 기준	24
<표 8>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검정 기준	25
<표 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	28
<표 10>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30
<표 11> 설문지의 내용 구성	30
<표 12> 교사의 연령 및 경력	31
<표 13> 교사의 전공분야	32
<표 14>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사용해본 음악교과서	32
<표 15>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악교과서의 출판사	33
<표 16>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에 대한 만족 정도	34
<표 17> 현재(앞으로) 사용 교과서를 선정한(다면) 이유	35
<표 18> 교과서의 내용을 볼 때 가장 고려하는 점	36
<표 19> 음악교과서가 가장 지향해야 할 목표	38
<표 20> 교과서의 외형체제 중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	39
<표 21> 수업시 교과서 내용을 다루는 비중	40
<표 22> 교사의 경력에 따른 수업시 교과서 내용을 다루는 비중	41

<표 23>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는 가장 큰 이유	41
<표 24> 수업 이외의 내용을 다루는 주된 방법	43
<표 25>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 외에 활용하는 교수·학습 자료	43
<표 26>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44
<표 27> 교과서 내용의 주된 지도 순서	45
<표 28> 교과서의 순서대로 지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45
<표 29> 제재곡 채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46
<표 30>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주된 기준	46
<표 31>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에 대한 평가	48
<표 32> 교사의 전공에 따른 제재곡의 음높이에 대한 평가	5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 음악 교육에 영향을 주고 그 교육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음악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이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법이며, 교과서는 교육 과정이 의도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활동을 엮어놓은 기본적인 학습 자료이다. 단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교육과정 수립 및 음악교과서 편찬 문제는 음악교육에서 가장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¹⁾

음악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교육과정으로 선정되었는가,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와 같이 현재 적용중인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적인 측면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똑같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이 주어졌을 경우 실제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 교과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중이며 모든 학생들이 1학년(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음악 수업을 받게 되어 있고, 11, 12 학년(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음악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음악 과목의 경우 초등학교까지는 국정교과서, 중학교부터

1)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204.

는 검정교과서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검정도서는 동일 교육과정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제재곡과 학습목표, 활동, 평가 등의 구체적 내용이 출판사마다 다르다.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의 경우, 수업에서 교과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며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역할뿐 아니라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 선택 권한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 역할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한번 만들어진 교과서는 최소 5년을 사용한다. 교수·학습에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교육에서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까지 할 수 있다. 현장 교사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교과서 편찬과 나아가 교육과정 편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과서 관련 연구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교과서에 반영된 이론을 검토하는 등의 교과 교육관련 연구와 교과서 정책, 제도 개선 등의 환경 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반면 교과서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교과서의 체제나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 방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²⁾

따라서 이 연구는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음악교과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이주연,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활용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p.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의미, 기능, 활용, 체제 등 교과서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검정 변천, 검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설문 조사를 통하여 중학교 음악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9종의 교과서 중에서 현재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과서 선택시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실제 수업에서는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현재 사용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셋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음악교과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설문지 조사 및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대상자는 서울소재 중학교에 재직하는 음악교사들로서 11개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별로 2개 학교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교사들이 설문을 거부할 경우 같은 교육청의 다른 학교를 찾아가 설문하는 방식으로 하여 모두 32개 학교를 방문하였고 그중에 설문에 응해준 학교는 총 25개였다. 한 학교에서 1명에서 3명까지의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총 49명의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통계처리에 부적합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총 24개 학교, 4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관련 연구들을 참조하여 직접 제작한 것으로

교사의 개인적 배경, 사용 교과서를 선정한 이유, 수업시 교과서의 활용방법, 사용 중인 교과서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자료의 수집은 2005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5개의 학교들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대상인 음악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또는 2~3일 후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 소재 24개 중학교 43명의 음악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음악 교사들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둘째, 설문 조사 결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9종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중 두산, 아침나라, 성안당, 지학사, 천재교육, 세광음악출판사, 교학연구사, 동진음악출판사만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에 대한 평가, 만족 정도에 대해서 도서출판태성을 제외한 8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교과서

1. 교과서의 의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내용, 학생이 있어야 하며 교육내용에 속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³⁾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마땅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정말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지 공중에 의해 인정이 되어야 한다.

공중에 의해 내용상의 가치가 인정된 교과서는 피상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공중의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즉, 가르치고 배울 가치가 있는 내용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의미를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⁴⁾ 현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⁵⁾ 제2조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 전자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교과서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다. “교과서란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이념이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알맞게 편집된 학습 자료로서 학생용 도서이다”⁶⁾, “교과서란 각 교재가 지니는 지식의 경험의 체계를 쉽게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편집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이다”⁷⁾, “교

3) 한국교육개발원, 「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p.13.

4) 류연수 외,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평가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p.8.

5) 교육법 제57조 2항에 근거를 둔 이 법령은 용어의 정의, 교과용 도서의 선정을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1종도서, 2종도서, 인정도서, 수정 및 개편, 발행, 가격사정, 감독, 보칙 등 9장으로 분류된 전문 5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6)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9. p.30.

7) 교육학 사전 편찬위원회, 「교육학 대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1972.

과서는 교육과정의 정신과 내용을 구체화해 놓은 책으로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학생의 발달 수준에 알맞게 풀이하고 편집한 도서이다”⁸⁾, “교과서는 학생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구성한 도서인 동시에, 단어, 예시, 연습, 교사의 교수 보조물 등으로 구성되어 교실에서 사용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제작물이다”⁹⁾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거해 학생에게 알맞은 내용을 편집해 놓은 도서로 교육의 주된 내용을 수록한 지식체계이며 교육 활동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각급 학교마다 이수하도록 하는 교과목의 운영에서 교과서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수업의 상황에서 학습하기 위한 조직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 교과서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취급되는 방식에 있어 교과서를 단지 참고 자료로 인식하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서 그 자체가 배우고 익혀야 할 목적물이 아니라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에 맞게 조직하고 있는 데 반해, 일반 학습자료는 교육내용을 포괄성이나 교육과정의 원리에 맞춰 반드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교과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고 있는데 반해, 일반 학습자료는 교육활동의 활용도만을 제시한다.¹⁰⁾ 이처럼, 교과서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자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교재가 아닌 많은 학습 자료중의 하나로 이해하되 교과서의 의미를 감안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김종서, 「교과서 제도에 관한 외국 제도와 우리 제도의 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0

9) 김두정, 교과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방안: 시각, 현황, 과제, 「교육과정연구」

서울: 한국교육학회교육과정연구회, 1995, p.3.

10) 이주연, 전계서, p.8.

2. 교과서의 기능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편집해 놓은 하나의 도구로서 학생들에게 전해야 할 지식을 일정한 계열과 순서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 효과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 그 내용들은 시간, 순서, 원인과 결과, 중요성, 유사성과 차이점 등의 관계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아야 한다.¹¹⁾ 이는 교과서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선택하고 단순화하여 배우기 쉬운 형태로 제시해 줌으로써 교사의 교육 활동을 도울 뿐 아니라, 학생이 교과서를 스스로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교과서의 기능도 의미처럼 어떤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재복(1987)은 교과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교과서는 우선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선택·조직하여 배우기 쉬운 순서와 형태로 제시하는 ‘학습 내용의 제시 기능’, 둘째, 지식을 산출하게 된 탐구 과정을 제시하여 학습방법을 배우게 하는 ‘탐구과정의 유도기능’, 셋째,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시해 주는 ‘학습 자료의 제시 기능’, 넷째, 학습자의 흥미를 학습으로 동기화 시키는 ‘학습 동기의 유발기능’, 마지막으로 한 단계의 학습이 끝난 후에 연습 문제나 탐구 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미 배운 내용을 확인 평가하는 ‘연습 문제 및 탐구 과제의 제시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¹³⁾ 이와 함께 김용화(1990)는 교과서의 기능으로 ‘학습동기 유발기능’, ‘학습의 기본요소 제시 기능’, ‘탐구 과정의 유도기능’, ‘자료의 제시 기능’, ‘학습 및 학습 자료의 제시 기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¹⁴⁾

11) 조경자, 「교과서 정책의 비교와 변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1999, p.7.

12) 류연수 외, 전제서, p.9.

13) 김재복,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개발」 49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7, pp.12-14.

최근에는 교수 중심의 수업과 그러한 수업을 성립시킨 ‘교재로서의 교과서’라는 관점으로부터 학습 중심의 수업을 성립시키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재로서의 교과서’의 기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지식 전달을 중요시하던 시기의 교과서는 정선된 지식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시키며 암기시키고 반복 연습시키기 편리하도록, 그러한 기능을 하게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로 오면서 학교의 지식 전달 기능은 학습자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기능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즉,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학습 의욕 환기 기능’,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면 좋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학습 과제 제시기능’, 학습의 방법, 사고의 방법,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학습 방법 제시 기능’, 학습의 개별화를 도모하고 개성을 살릴 수 있게 하는 ‘학습의 개성화·개별화 기능’,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면서 학습의 성과를 정착 시키는 ‘학습의 정착의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실제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단지 내용을 제시해주기 보다는 교수·학습 과정을 선도하며, 학생들이 실제 세계에 대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중요한 교과서의 기능으로 논의하고 있다.¹⁶⁾

3. 교과서의 내용

교과서는 공적인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선정하기 전에 유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 교육은 교육에 관한 법에 의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4) 김용화,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pp.11-13.

15) 함수곤, 새로운 교과서의 기능, 「교과서연구」 39호,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2002, pp.9-10.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서울: 교육과정평가원, 1998, pp.32-36.

또한 표현과 표기가 정확하여야 하며 인성 교육, 환경 교육, 정보화 교육과 같은 범 교과서의 내용들이 교과서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 선정에 있어 그 내용은 교육목표와 일치하여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참신하여야 한다. 또한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 능력과 흥미, 필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도 연계를 지닐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¹⁷⁾

각 과목별로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선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교과서의 모습에 대해 배종수(2002)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⁸⁾

첫째,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교과서’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의 인간상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반영하는 교과서’로서 그 내용이 각 교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맞아야 하며 각 교과목의 교수·학습 방법과 학습자의 학습 능력, 학습 심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내에서 평가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과서’로서 교과서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자율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 중심

17) 최석진 외,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pp.106-107.

18) 배종수, 좋은 교과서의 조건들, 「교과서연구」 39호,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2002, pp.24-25.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 학습 과정을 중시하고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이 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쉽고 재미있고 활동하기 편리한 교과서’로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흥미와 동기 유발을 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멀티미디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은 ‘미래 사회의 삶을 준비하는 교과서’로서 교과서는 교사가 현실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과서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좋은 교과서,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4. 교과서의 활용

1) 교과서관

교과서의 활용은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교과서관이란 교과서의 속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를 말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하나는 교과서를 절대시 하는 닫힌 교과서관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서를 다양한 자료의 하나로 보는 열린 교과서관이다.¹⁹⁾

닫힌 교과서관에서 교과서는 학습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료

19) 광병선, 이해영,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6. pp.8-9.

이며, 학교 수업의 과정은 교과서로 시작하여 교과서로 끝나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과서는 교육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누구나 함부로 이리저리 변경할 수 없고, 모든 학생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달해야 한다. 따라서 수업방식도 교과서를 읽고, 설명하고, 응답하고, 교과서 내용을 요약하여 필기하는 등의 ‘교과서 해설 중심 수업 방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열린 교과서관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로서의 도구적 성격을 띤 자료집에 불과하다는 관점으로 교과서 이외에도 많은 교과 도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과서는 모조리 암기해야 할 자료가 아니라 학습을 이끌어 주는 여러 학습자료 중의 하나로 그 내용이 언제나 옳은 것으로 습득되도록 제시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자료가 교과서만으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읽기 자료, 자율 학습용 교재, 사례집 모음 자료, 학생들이 만들어 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더욱 중요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육은 지양되며, 연습하고, 문제를 제기해 보고, 가설을 세워 보고, 실험하고, 토론하는 활동에 강조를 두는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방식’이 강조되게 된다.

그동안 교과서 활용방식은 닫힌 교과서관의 영향을 받아 수업에서 교과서의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취급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열린 교육, 열린 교과서관의 영향을 받아 교과서를 독자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적 능력의 신장에 따른 교사들의 자구적 노력 또한 교과서의 활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그 범위와 수준을 떠나, 새로운 교과서 활용방식의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²⁰⁾

20) 이주연, 전계서, p.28.

2) 교과서와 교수·학습 자료

교과서는 선정된 내용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한 주제에 관한 모든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없으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만을 다루어 개인차나 지역차를 충분히 고려해줄 수도 없다. 결국 단 하나의 교과서만으로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줄 수 없다.²¹⁾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과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에서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 저작물 등(이하 보완교재)’으로 개정된 것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의한 것이다.

교과서 외의 교수·학습 자료라하면 문헌적 자료로는 참고서, 사전, 연감, 지도, 연도표, 잡지, 신문, 도서 등이 있으며 시청각 자료로 영화, TV, 슬라이드, 라디오, 테이프 레코더, 그림, 사진 모형, 그림연극 등이 있다. 또한 동식물, 광물과 같은 지역의 자연물이나 관청, 은행, 공장, 우체국, 역, 박물관, 공공시설과 같은 실물자료도 훌륭한 교수·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²²⁾ 더불어 공학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 CD-ROM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라 할 수 있다.

3) 교과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사들이 교과서를 활용함에 있어 어떤 교사들은 교과서에 크게 의존하고, 어떤 교사들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어떤 교사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베글레이(Bagley, 1931)²³⁾는 경험(교직 경력)이 교과서 사용을 결

21) 백명진 외,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1998, p.22.

22) 杉山正一 외, 「교과서 활용이 훌륭한 교사」 보이스사 편집부 옮김, 서울:보이스사, 1990, p.25-28.

23) 이주연, 전계서, pp.30-31. 재인용

정하는 한 요소라고 하고 있다. 교사의 경력이 낮을수록 교과서에 의존하는 성향이 크다.

교육내용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사의 신념이나, 교육경험과 같은 내적 요인과 교육목표, 시험, 교장의 견해, 다른 교사들의 견해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 교사의 신념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학과과목에 대한 전문성 역시 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칼슨(Carlson, 1987)²⁴⁾은 높은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교사들이 교재 연구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자료들에 대해 묻는 질문을 많이 계획하는 반면, 낮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들은 단지 교과서 내에서 발견된 정보들을 회상하도록 하는 단순한 질문들을 주로 계획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배당된 교과목들에 할당 되어진 시간의 양과 교과서의 양의 차이는 다양한 교과서 사용형태를 가져오며 교과서 활용 방식에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교사의 교과서 활용 방식은 교사의 교육관뿐 아니라, 시설 환경과 교과서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으며,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부모에 의한 기대,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기 위한 문화적 지원, 교과서 구성의 질적 수준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5. 교과서의 체제 25)

국가 기준 교육과정을 가진 한국의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나 방식에 따른 분류가 가장 적절하다. 교과서 편찬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 관여의 정도 측면에서 교과서 편찬 제도는 크게 국

24) 이주연, 전계서, pp.30-31. 재인용

25) 교육부, 「교과서 백서」 서울: 교육부, 2000, pp.11-15.

교과서의 체제, 채택, 외형체제에 관한 내용 구성은 「교과서 백서」 중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를 근간으로 하였다.

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도로 나뉘볼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은 국정제와 검정제를 근간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인정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1) 국정제

국정제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직접 또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편찬 발행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국정제 도서는 국정도서라고 하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연구·개발을 위임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정도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국정 교과용 도서, 고등학교 전문 교과목 대부분의 교과서와 특수학교 교과서 등 시장 수요가 적어 경쟁성이 없는 도서가 국정도서로 해당된다. 교과서 채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교과서 저작의 근거인 별도의 교과서 기준이 곧 채택의 근거가 된다.

2) 검정제

검정제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저작한 교과서를 국가기관이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검정하는 제도이다. 교과서의 제작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국정제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한 후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정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검정제 도서는 검정도서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검정도서는 일정자격을 가진 발행사와 약정을 체결한 개별 저작자가 교육과정과 검정도서의 집필상의 유의점에 의거 교과별 도서를 저작한 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실시, 공고한 검정에 출원하여 합격한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검정도서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검정 기준은 교과목 별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중학교의 사회 등 11개 교과와 고등학교 화법 등 116책이 검정도서에 해당된다.

(1) 검정의 목적 및 필요성

검정(檢定)이란 민간 출판사와 저작자가 편찬한 도서를 학교에서 교수·학습용 도서로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교육부나 그 위임을 받은 공공성 있는 기관이 판단하는 절차이다.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가 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학교 교육에서,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합치되는, 학교 교육에 사용할만한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선별하며 품질이 보증된 도서만을 확보, 공급하는데에 검정의 목적이 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민간의 상품 공급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그 품질 검사를 하여 양질의 상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다. 교과용 도서 검정도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여 민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시장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양질의 상품만 공급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²⁶⁾

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교과용도서 검정 편람(개정)」
서울: 교육과정평가원, 2000, p.3.

교과용 도서 검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교과서는 미성숙한 학생들이 배우는 주요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지적, 정서적 발달 단계에 적합하며 학문적 오류나 정치적, 종교적 편견을 배제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는 공공성있고 권위있는 기관의 검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서는 초·중등 학생이 배우는 교재이기 때문에 차세대 국민의 정서나 가치를 해치는, 수준 이하의 교재가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교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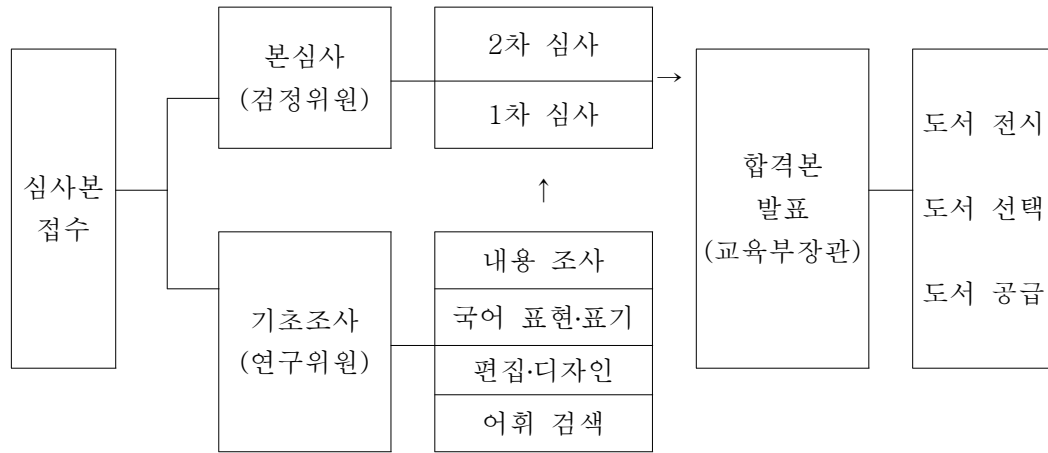
셋째, 이데올로기적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교과목의 경우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양질의 도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검정이 필요하다.²⁷⁾

(2) 검정의 방법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 65종(1학년 25종, 2학년 20종, 3학년 20종), 고등학교 125종(보통교과 116종, 전문교과 9종)에 대해 검정 공고를 1998년 12월 31일에 한번 하였다. 검정이 공고되고 심사본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검정이 시작된다. 교과서의 검정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실시하는데, 1차 심사는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2차 심사는 1차 심사 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이행 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검정 절차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27) 교육부, 전계서, pp.124-125.

<표 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용 도서의 검정 절차



검정방법에 있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연차별 검정이 이루어진 것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의 경우 중학교 1, 2, 3학년을 한 해에, 고등학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은 다음 해에 동시 검정이 실시되었으나, 교재 집필자의 부담을 덜고 철저한 검정 심사를 통해 교재의 질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새롭게 연차별 검정의 방법이 도입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용 도서의 검정 연차 계획은 <표 2>와 같다.

<표 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용 도서의 검정 연차 계획

학교급		연도			
		2000	2001	2002	2003
중학교	1	검정	적용		
	2		검정	적용	
	3			검정	적용
고등학교	기본/일반/전문과정		검정	적용	
	심화 선택			검정	적용

(3) 인정제

인정제는 교과서의 사용에 국가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저작 도서를 국가 기관이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제도이다.

인정제 도서는 인정도서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인정도서는 ‘관할 구역 안의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장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도서’를 말하며 개별출판사에서 발행과 공급을 담당한다.

인정도서는 국정, 검정 교과서로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이나 지역 여건,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며 학과 신설 및 교과목 개설로 전혀 교과용 도서가 없는 경우,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중·고등학교 교양 선택 교재, 재량활동,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교재, 일반 또는 지도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국정·검정 도서는 있으나 보완교재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게 된다.

한국의 교과서 편찬 제도(국정제, 검정제, 인정제)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구분은 <표 3>과 같다.

<표 3>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구분²⁸⁾ (1998년 4월 및 12월)

구분	1종도서(국정도서)	2종도서(검정도서)	인정도서
저작 편찬	교육부가 저작, 편찬한 교과서와 지도서	민간이 저작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와 지도서	민간이 저작, 발행하여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도서
과목	초: 교과서와 지도서 전부 중: 국어, 도덕, 국사, 생활외국어의 교과서와 지도서, 특별활동 지도서, 정보통신 기술활용 지도 자료 고: 국어(독본), 도덕, 국사교과,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생활과 과학, 해양과학, 아랍어 I II 등의 교과서와 지도서, 특별활동지도서, 정보통신기술활용 지도자료	중: 사회 등 11개 교과 고: 화법 등 116책	초: 우리들은 1학년, 4학년 사회과탐구의 교과서와 지도서 외 중: 인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조직 고: 교양 교과(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등), 전문교과 중 '프로그래밍 실무'등 77책 외
발행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	한국2종교과서협회(공동발행, 공동생산)	개별 출판사
공급	대한교과서(주)에서 대행	대한교과서(주)에서 대행	개별 출판사

28) 일반계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특수 학교 교과용 도서와 「상업경제」를 포함한 8책의 전문교과를 제외한 실업계 고교의 전문 과목 교과용도서, 특수 목적계 고교 교과용도서는 1종 도서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2. 6. 25)되기 전이므로 1종 도서, 2종 도서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6. 교과서의 채택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하는 것을 교과서의 채택이라고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고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채택 방법에 대해서 법률상의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단일 국정도서를 사용하는 과목일 경우에는 교과서의 선택여지가 없으나, 검정도서나 인정도서를 사용해야 하는 과목일 경우 각각 출판사가 다른 여러 종의 교과서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하여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한국의 경우 교과서의 주문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서 채택의 권한도 학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목 교사들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행사된다.

7. 교과서의 외형체제

교과서의 외형은 단순한 물리적인 특성 외에 심미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교과서의 글씨 크기나 모양도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삽화의 제작과 편집도 학생들의 효율성과 관련지어 고려되어야 한다.²⁹⁾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공고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교과용도서의 체제 기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없어지고 ‘집필상의 유의점’에 제시한 체제에 관한 유의점에는 판형, 활자, 쪽수, 색도만 제시하였다. 외형체제에 관한 규

29) 배종수, 전제서, p.22.

제사항이 다소 풀어짐에 따라 내용의 선정, 조직 체계 뿐 아니라 편집, 디자인 등의 아이디어도 검정 출원 출판사간에 경쟁이 되는 요소가 되었다. 이전의 교과서 외형체제와 변화가 있는 것은 본문 용지가 70~80g/m²로 고급지로 조정되었다는 것과 모든 교과서의 판형이 4×6배판으로 바뀐 점을 들 수 있다.³⁰⁾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외형체제 요소는 <표 4>와 같다.

<표 4>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외형체제 요소

외형 요소	내용	
판형·활자	중·고등학교 서체 및 크기	4×6배판 중학교 11pt, 고등학교 10.5pt
쪽수	중·고등학교	기준쪽수의 20% 가감
지질	표지	엠보싱 220g/m ²
	본문지	미술·부도: 아트 또는 스노화이트지 120g/m ² 2색도 교과서·지도서: 서적지 70g/m ² 4색도 이하: 고급 서적지 80g/m ²
	화보	아트 90g/m ²
	속표지	본문지
색도	중학교	6도: 사회과부도 4도: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미술, 영어, 환경 2도: 수학, 음악, 한문, 컴퓨터
	고등학교	6도: 부도 2도: 국어, 수학, 음악, 외국어, 한문 등

30) 허강,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서울: 일진사, 2004, pp.281-282.

8. 중학교 음악교과서

1) 검정 대상 음악과목의 변천

음악교과서의 경우 1, 2학년은 다른 예체능 교과와 통합된 「즐거운 생활」을 사용하며 3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음악」, 11, 12학년은 「음악과 생활」을 사용하고 있으며 1학년부터 6학년(초등학교)까지는 국정교과서의 체제를 7학년부터 12학년(중·고등학교)까지는 검정교과서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검정 대상 음악과목의 변천은 <표 5>와 같다.

<표 5> 검정 대상 음악과목의 변천³¹⁾

교육 과정기 학교	교수 요목기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중학교	음악	음악	음악 (1,2,3)	2차 교육과정기 검정도서 중 단일본 지정	음악 (1,2,3)	음악 (1,2,3)	음악 (1,2,3)	음악 (1,2,3)
고등학교	음악, 음악통론, 악전, 올겐교본	음악	음악 I·II	음악	음악	음악	음악 I	음악, 음악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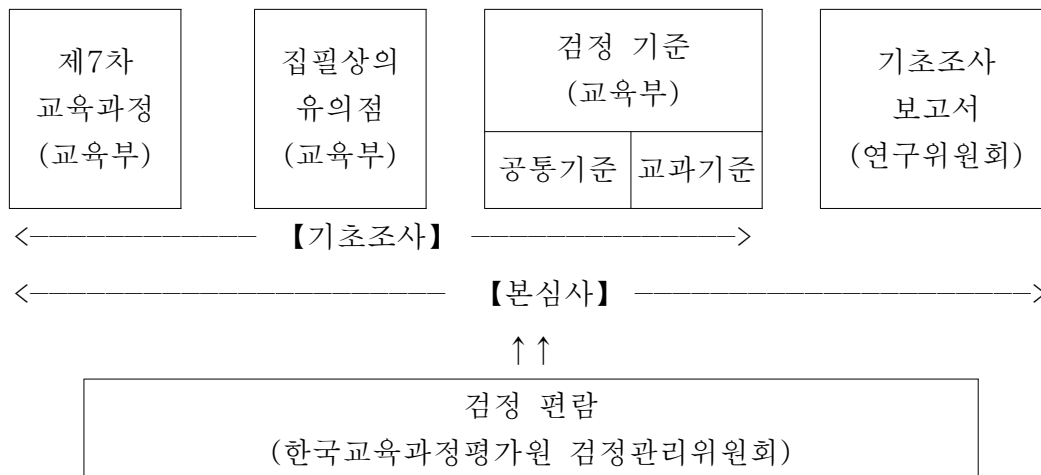
31) 허강, 전계서, pp.140-142.

2) 검정 기준³²⁾

머셀과 글렌(Muresell & Glenn, 1987)은 음악교과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교재의 내용, 전체적인 조직, 다른 교과와의 관련, 교육적 지시, 체제, 및 참고사항을 들고 있다. 이흥수(1991)는 구성체제, 교재곡의 내용, 학습내용의 조직, 자기주도적 창작활동의 포함 등을 음악교과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³³⁾

현재 한국 교과서의 검인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정 과정에서 교과용 도서의 적격·부적격 판정은 ‘제7차 교육과정’, ‘집필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을 준거로 하고, 기초 조사 연구위원이 보고하는 도서 분석 자료를 참조하여 교과별 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교과서 검정 과정의 준거 및 참고자료는 <표 6>과 같다.

<표 6> 교과서 검정 과정의 준거 및 참고자료



32)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검정 기준에 관한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편람(개정)」을 요약하였다.

33) 권덕원 외 3인, 「음악 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5, p.158. 재인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학교 검정도서에 대한 검정 기준은 학년별 구분은 따로 없으며 그 내용에 있어 교과서 공통 내용과 교과별 내용으로 나뉜다. 공통 기준은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평가되는 요소로서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 일치, 저작권 위배 여부, 내용의 보편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게 되며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공통 기준은 교과용 도서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준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한 항목이라도 위반한 도서는 교과 기준에서 제외된다.

<표 7> 중학교 교과서의 공통 검정 기준

심사영역	심사관점
I.헌법 정신과의 일치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특정 국가, 종교, 단체, 계층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한 내용이 있는가.
II.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 일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가.
III.저작권 위배 여부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표절 또는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IV.내용의 보편 타당성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

각 교과별 기준에서는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방법, 표현·표기, 편집 및 외형 체제, 편집체제, 독창성’의 7영역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기준의 특징으로는 ‘독창성’이라는 영역을 넣어 창의적이고 교과용 도서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게 한 것과 교사용 지도서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검정 기준은 <표 8>과 같다.

<표 8>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검정 기준

영역	심사관점	채점요소
I. 교육 과정의 준수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성격과 목표 반영 정도 선정된 내용 적절성 : 학년급, 배경학문 이론 등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 등 내용과 방법에 맞는 평가 과제 제시 -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II. 내용 선정 및 조직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과 평가의 관련성, 제재 악곡 중심의 단원 체제, 40여곡 정도의 제재곡, 참고 *악곡의 다양성 학습 목표와 제재곡, 학습 내용, 학습 평가, 참고 자료 등의 내용이 적절한가를 검토한다.
	제재 악곡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흥미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는가?	제재 악곡의 수준과 흥미 고려
	내용은 학생의 수준 및 학교급간, 학년간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조직하였는가?	계열성 제재 악곡, 학습 목표, 학습 활동, 학습 평가는 초·중·고등의 학교급간, 중학교 1,2,3학년의 계열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시간 배당 기준에 알맞은 학습 분량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는가?	주당 2시간(중1)에 적절한 분량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주당 2시간으로 연간 총 68시간이 배당되고 있다. 이 배당 시간에 알맞은 학습 분량을 선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인 이론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악보, 작곡가, 작사가, 음악 용어, 지시어 등의 오류 유무

II. 내용 선정 및 조직	<p>범교과 학습 내용을 관련 단원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p>	<p>민주시민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양성 평등 교육 등과 관련 있는 내용의 반영 여부.</p>
	<p>전통 음악은 이해와 활동 영역이 고르게 학습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는가?</p>	<p>전통 음악의 이해와 활동 영역의 학습 내용의 유무와 적절성</p>
	<p>이해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 속에서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는가?</p>	<p>이해 영역과 활동 영역과의 통합적 학습 여부</p>
	<p>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조직하였는가?</p>	<p>활동 영역 조직의 창의성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은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 활동과 학습 평가가 적절히 조직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p>
	<p>제재 악곡의 배열은 전후 단원간의 학습의 위계성을 고려하였는가?</p>	<p>제재 악곡에 배열에 있어 계열의 적절성과 난이도의 위계성</p>
III. 교수 · 학습 방법	<p>음악 교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는가?</p>	<p>교수·학습 방법의 다양성</p>
	<p>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는가?</p>	<p>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 Synthesizer, 인터넷 환경 등 정보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다양성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 Synthesizer, 인터넷 환경 등 다양한 정보 자료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p>

<p>Ⅲ. 교수 · 학습 방법</p>	<p>음악과 교육의 목표-내용- 방법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 과 과제를 제시하였는가?</p>	<p>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에 따 른 평가 방법과 과제 제시 여부 평가 방법과 과제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 표, 내용, 방법과 일치하는가, 즉 음악과 교 육과정 목표, 내용, 방법의 내용을 평가하 는 방법과 과제 제시 여부를 검토한다.</p>
<p>Ⅳ. 표현 · 표기</p>	<p>표현·표기는 한글맞춤법, 표 준어 규정, 외래어는 외래 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p>	<p>표기법, 맞춤법 준수, 오타자 유무</p>
<p>Ⅴ. 편집 및 외형 체제</p>	<p>편집 디자인이 참신하고, 지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 하고 있는가?</p>	<p>편집 디자인의 참신성과 효율성</p>
	<p>사진과 삽화는 선명하고, 정확성과 참신성을 고려하 였는가?</p>	<p>사진과 삽화의 선명성, 정확성, 참신성</p>
	<p>판형, 쪽수, 색도 등 외형 체제는 집필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 는가?</p>	<p>판형, 쪽수, 색도 등 외형 체제의 집필상의 유의점의 반영 여부</p>
<p>Ⅵ. 독창성</p>	<p>참신한 내용을 선정하여 독 창적으로 구성하고, 음악 용어, 표기 등은 정확성을 고려하였는가?</p>	<p>내용 선정의 독창성, 정확성 제재곡과 참고곡, 학습 활동, 학습 평가 등 의 내용을 선정할 때, 기존의 학습 내용이 나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 질 수 있도록, 새롭고 의미 있는 내용을 발 굴하여 구성하였는지를 검토한다.</p>
	<p>교수·학습 과정과 활동이 독창적인가?</p>	<p>교수·학습 과정과 활동의 독창성</p>

3) 최종 검정 합격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의 연차별 검정을 채택하였기에 중학교의 경우 먼저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졌다.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경우 총 31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하였고 정규 검정 심사에서 5종, 재검정 심사에서 4종이 합격하여 총 9종만이 심사에 통과되었으며 <표 9>와 같다. 정규 검정 심사에 합격한 5종은 2001년부터, 재검정 심사에 합격한 4종은 2002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중학교 2, 3학년의 경우도 본 검정과 재검정을 거쳐 9종이 합격하였으며, 2002년도와 2003년도부터 각각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검정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2년 본 심사에서 불합격하고 재심사에서 합격하여 2001년에 사용되지 않고 2002년부터 사용된 경우가 있었고, 2000년 검정에 합격한 1학년 교과서들 중에 2001년 2학년 교과서 심사에서 불합격하여 1학년 때 해당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생들이 2학년에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표 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

출판사	저자	2001
두산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정규 검정 심사
아침나라	윤경미, 문진	정규 검정 심사
성안당	최필립, 김영재, 신금식, 유제향	정규 검정 심사
지학사	윤명원, 김영희	정규 검정 심사
천재교육	백병동, 최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정규 검정 심사
세광음악출판사	고춘선, 홍종건	재검정 심사
교학연구사	조창제	재검정 심사
도서출판 태성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재검정 심사
동진음악출판사	김준수, 동훈	재검정 심사

Ⅲ. 교과서 활용실태 조사

1.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자는 서울시내 중학교에 재직하는 음악 교사들로서 11개 교육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별로 2개 학교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교사들이 설문을 거부할 경우 같은 교육청의 다른 학교를 찾아가 설문하는 방식으로 하여 조사를 하였다.

2005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두 32개 학교를 방문하였으며 설문에 응해준 학교는 25개였다. 한 학교에서 1명에서 3명의 음악교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또는 2~3일 후에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총 49명의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49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 6부를 제외하였으므로 이 연구는 11개 교육청의 24개 학교, 총 43명의 교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은 <표 10>과 같다.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각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와 그에 따른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결과 자료는 편중되어 있기는 하나 연령별, 경력별, 전공별로 비교·분석하였다.

<표 10>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현황 \ 배부	학교	교사
방문수	32	
응답수	25(78.13%)	49
이용 가능한 설문지 수	24(75.00%)	43(87.76%)

2) 조사도구

이 연구는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과서의 검정 기준’,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과 음악교과서 관련 연구들을 참조하여 직접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내용구성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지의 내용 구성

연구 내용		문항
교사의 배경	교사의 연령, 경력, 경험·사용 교과서, 만족정도	1~7
교과서의 선정	교과서 선정시 고려하는 점	8~12
교과서의 활용	교과서 다루는 비중, 교수·학습자료, 수업에서의 활용	13~21
교과서의 평가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 내용의 평가 (적절성, 다양성, 연계성, 다변성 등)	22~40

2. 조사 결과 및 논의

1) 교사의 배경

<표 12> 교사의 연령 및 경력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4	9.3
	30대	7	16.3
	40대	28	65.1
	50대	4	9.3
	60대	0	0.0
경력	5년미만	7	16.3
	5-9년	2	4.7
	10-14년	2	4.7
	15-19년	13	30.2
	20년이상	19	44.2
계		43	100.0

교사들의 연령은 <표 12>와 같이 40대가 28명으로 전체의 65.1% 비율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가 7명(16.3%), 20대와 50대가 각각 4명(9.3%)으로 나타났으며 60대는 없었다.

경력은 20년 이상이 19명(44.2%)으로 가장 많았으며, 15-19년이 13명(30.2%), 다음으로 5년 미만이 7명(16.3%), 5-9년, 10-14년이 각각 2명(4.7%)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 7명 중에는 4대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교사의 전공분야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악	22	51.2
성악	16	37.2
작곡	5	11.6
국악	0	0.0
기타	0	0.0
계	43	100.0

교사의 전공은 <표 13>과 같이 나타났으며, 43명 모두가 서양음악 전공자로 기악이 22명(51.2%)으로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성악 16명(37.2%), 작곡 5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국악 전공은 전혀 없었는데 이것은 중등 음악교사가 될 수 있는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 국악과가 서양음악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표 14>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사용해본 음악교과서

구분	빈도(명)	백분율(%)
두산	22	25.3
아침나라	4	4.6
성안당	3	3.4
지학사	14	16.1
천재교육	16	18.4
세광음악출판사	23	26.4
교학연구사	3	3.4
도서출판태성	1	1.1
동진음악출판사	1	1.1
계	87	100.0

43명의 교사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사용해본 출판사별 음악교과서는 총 87권으로 사용빈도는 2권이 18명(46.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권이 13명(30.2%), 3권과 4권이 각각 5명(11.6%)으로 평균 2.02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별 현황은 <표 15>로 세광음악출판사가 23명(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산 22명(25.3%), 천재교육 16명(18.4%), 지학사 14명(16.1%), 아침나라 4명(4.6%), 성안당과 교학연구사가 각각 3명(3.4%), 도서출판태성파 동진음악출판사가 1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검정은 2001년부터, 재검정은 2002년부터 사용되었는데 3~4 종류의 교과서를 사용한 교사가 25%정도 된다는 것은 사용할 교과서를 수시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5>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악교과서의 출판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두산	7	29.2	7	29.2	7	29.2
아침나라	1	4.2	1	4.2	1	4.2
성안당	3	12.5	3	12.5	3	12.5
지학사	2	8.3	1	4.2	1	4.2
천재교육	5	20.8	3	12.5	3	12.5
세광음악출판사	5	20.8	8	33.3	8	33.3
교학연구사	1	4.2	0	0.0	0	0.0
도서출판태성	0	0.0	0	0.0	0	0.0
동진음악출판사	0	0.0	1	4.2	1	4.2
계	24	100.0	24	100.0	24	100.0

24개 각 학교에서 현재 사용중인 음악교과서를 출판사별로, 또한 학년별로 알아본 결과, 3개 학교는 1학년과 2·3학년이 다른 출판사의 음악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1개 학교에서는 전 학년이 같은 출판사의 음악교과

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24개 학교에서 1학년은 두산이, 2·3학년은 세광음악출판사의 사용이 가장 높았으며, 24개 학교 중 도서출판대성을 사용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사용해본 교과서의 현황과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의 현황에서 두산, 세광음악출판사의 음악교과서 빈도가 나머지 7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차별 검정으로 인하여 출판사별 차이가 있는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으나 정규검정에 통과한 성안당이나 아침나라의 사용 학교가 적고, 재검정에 통과한 세광음악출판사의 사용 학교가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연차별 검정의 방법은 교과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교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음악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표 16>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에 대한 만족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30%미만	4	9.3
30-50%미만	5	11.6
50-70%미만	24	55.8
70-90%미만	10	23.3
90-100%	0	0.0
계	43	100.0

<표 16>과 같이 현재 사용중인 음악교과서의 만족 정도에 대해 50-70%미만이라고 한 교사의 수가 24명(55.8%)으로 가장 많았으며 70-90%미만이 10명(23.3%), 30-50%미만이 5명(11.6%), 30%미만이 4명(9.3%)이었다.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에 대한 만족 정도는 교사의 전근으로 기존에 쓰이던 음악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교사와의 협의로 인해 가장 선호하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출판사별 사용 학교의 수, 교사의 수를 동일시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출판사별 사용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앞서 출판사별 만족 정도 대신에 교사들이 많이 사용해 본,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의 빈도를 조사하여 선호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2) 교과서의 선정

다음은 교과서 선정에 관한 것으로 현재(앞으로) 사용 교과서를 선정한(다면) 이유, 교과서의 내용을 볼 때 가장 고려하는 점, 고려하는 특징적 요소, 교과서가 지향해야 할 목표, 교과서의 외형체제 중 중점적으로 보는 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선정시 교사들이 고려하는 점은 교과서 개선시 비중있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으로써 교과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7> 현재(앞으로) 사용 교과서를 선정한(다면) 이유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과서의 내용	42	70.0
교과서의 디자인 및 편집	1	1.7
지도서 및 부록교재의 활용	12	20.0
출판사의 인지도	0	0
기타	5	8.3
계	60	100.0

현재(앞으로) 사용 교과서를 채택한(다면) 이유에 대해서 교사들이 ‘교과서의 내용’ 뿐 아니라 어떠한 점을 고려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에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다. 총 43명의 교사 중 27명은 교과서의 내용에, 1명은 지도서 및 부록교재의 활용에 단수로 답하였으며 10명은 교과서의 내용과 지도서 및 부록교재의 활용, 4명은 교과서의 내용과 기타에, 1명은 교과서의 내용, 교과서의 디자인 및 편집, 기타에 복수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제재곡의 다양성·인지도·현실성, 기악곡 수록의 적절성, 감상 자료나 국악이론의 체계적 설명, 학생들의 흥미와 접근 용이성을 고려한 제재곡의 수록여부’와 같이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답변과 ‘교과서의 집필진 때문에’라는 답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과서 선정시 주로 교과서의 내용만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판사의 인지도, 교과서의 디자인 및 편집은 교과서 채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교과서의 내용을 볼 때 가장 고려하는 점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오류없는 내용의 정확성	2	4.7
학습 수준을 고려한 내용의 적정성	18	41.9
다원화 시대에 맞는 내용의 다변성	9	20.9
생활과 연계된 내용의 실용성	7	16.3
논리 전개가 짜임새 있는 내용 구성의 완결성	7	16.3
계	43	100.0

교과서는 그 내용에 있어 특정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 사실 진술, 이론 설명에 오류나 편향성은 없는가와 같은 내용의 정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교육과정과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이 선별되었는가, 학습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가와 같이 학습 요소의 범위와 깊이가 반영된 내용의 적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력과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

여,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내용의 다변성을 고려해야 하며 학문의 이론 체계 중심의 구성에서 탈피, 지식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연계되는 활동들을 제시하는 내용의 실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논리 전개에 짜임새를 가진 빈틈없는 구성으로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 교사들이 가장 고려하는 점은 <표 18>과 같이 ‘학습 수준을 고려한 내용의 적정성’이 18명(4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원화 시대에 맞는 내용의 다변성’이 9명(20.9%), ‘생활과 연계된 내용의 실용성’과 ‘논리 전개가 짜임새 있는 내용의 구성’이 각각 7명(16.3%)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오류없는 내용의 정확성’이 2명(4.7%)으로 나타났다. ‘오류없는 내용의 정확성’, ‘생활과 연계된 내용의 실용성’에 응답한 9명은 모두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검정은 그 기준에 ‘독창성’이라는 영역을 넣어, 창의적이고 교과용 도서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게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창성’은 내용적 독창성과 외형적 독창성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적 독창성은 ‘설명 방법의 내용적 독창성’과 ‘삽화 자료 등의 내용적 독창성’으로 나뉘지며, 외형적 독창성은 ‘단원 전개 형식 및 구성요소의 외형적 독창성’, ‘삽화, 도표 배열 등의 외형적 독창성’으로 나뉜다.

교과서 채택시 고려하는 독창성 부분에 대해 41명(95.3%)이 ‘내용 구성 및 설명 방법의 내용적 독창성’이라고 답하였으며, 2명(4.7%)은 ‘단원의 전개 형식 및 구성요소의 외형적 독창성’이라고 답하였고 이 2명은 모두 경력 5년 미만의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음악교과서가 가장 지향해야 할 목표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실천적인 ‘음악하기’ 중심의 교과서	25	58.1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서	7	16.3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과서	5	11.6
융통성 있는 체재의 교과서	5	11.6
기타	1	2.3
계	43	100.0

음악교과서가 가장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25명(58.1%)의 교사가 ‘실천적인 음악하기 중심의 교과서’를 음악교과서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서’가 7명(16.3%), ‘융통성 있는 체재의 교과서’가 5명(11.6%),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과서’가 5명(11.6%)으로 나타났고, ‘현대 시대에 맞는 정서와 눈높이 갖춘 교과서’가 기타(1명, 2.3%) 의견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이 의미있게 되기 위해서는 음악 자체를 위주로 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음악교육은 ‘음악하기’보다는 음악 개념의 이해나 기능의 습득에 중점을 두었고 교과서 또한 그러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활동 중심의 음악교육’을 강조하고 있기에 음악을 듣고, 노래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며, 음악을 만드는 ‘음악하기’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며, 음악의 개념이나 기능은 이러한 음악 활동을 통한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은 통합적이고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실천적이고,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학생 스스로 음악을 해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 연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음악을 듣고, 구별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연주함으로써 문제해결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³⁴⁾

음악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실천적 음악하기 중심의,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학습 수요자 중심의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체제나 구성·편집 체제에 있어 교사의 재구성이 용이하도록 융통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표 20> 교과서의 외형체제 중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글씨체, 가독성	7	16.3
페이지의 화면구성	24	55.8
색채, 색감의 요소	9	20.9
종이질	1	2.3
기타	2	4.7
계	43	100.0

교과서의 외형체제 중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표 20>과 같이 '페이지의 화면구성'이 24명(5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색채나 색감의 요소'가 9명(20.9%), '글씨체나 가독성'이 7명(16.3%), '종이질'이 1명(2.3%)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이미지, 악보가 눈에 잘 읽히는가', '난이도에 따른 차례 등과 내용관련 표, 삽화, 그림'이라고 2명(4.7%)이 답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검정에서는 집필상의 유의점에서 판형, 활자, 쪽수, 색도만을 제시함에 따라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과서는 판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 즉, 지질과 색도, 서체, 편집 디자인 등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⁵⁾

34) 교육부,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IV)」, 서울: 교육부, 1999, pp.88-104.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방향으로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우리음악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 '활동 중심의 음악교육',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교육', '타당성 있는 평가'를 들고 있다.

3) 교과서의 활용

다음은 실제 수업에 있어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교과서 내용을 다루는 비중,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는 이유,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할 시 수업 이외의 내용을 다루는 주된 방법,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 외에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교과서 내용의 주된 지도 순서, 교과서의 순서대로 지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제재곡 채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주된 기준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 음악교육에서는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실제 현장에서의 교과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봄으로써 현장에 적합한 교과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표 21> 수업시 교과서 내용을 다루는 비중

구분	빈도(명)	백분율(%)
30%미만	5	11.6
30-50%미만	6	14.0
50-70%미만	16	37.2
70-90%미만	13	30.2
90-100%	3	7.0
계	43	100.0

실제 수업에 있어 교과서 내용을 다루는 비중에 대해 50-70%미만이 16명(3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90%미만이 13명(30.2%), 30-50%미만이 6명(14.0%), 30%미만이 5명(11.6%)이었고, 90-100%가 3명(7.0%)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과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에는 교사의 교

35) 이홍수, 음악과 교과용 도서 개발 현황 및 개선 방안, 「교원교육」 제19권 2호, 2004, p.276.

직경력도 있다. 교사의 경력이 15-19년, 20년 이상에 편중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사 대상자인 43명 교사의 경력별 답변 현황은 <표 22>와 같다.

<표 22> 교사의 경력에 따른 수업시 교과서 내용을 다루는 비중

구분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30%미만	1	14.3					1	7.7	3	15.8
30-50%미만			1	50	2	100	1	7.7	2	10.5
50-70%미만	3	42.9					5	38.5	8	42.1
70-90%미만	3	42.9	1	50			4	30.8	5	26.3
90-100%							2	15.4	1	5.3
계	7	100.0	2	100.0	2	100.0	13	100.0	19	100.0

<표 23>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수업 시간의 부족	17	39.5
교과서 내용의 과도한 분량	10	23.3
학생들의 학습 능력 부족	6	14.0
선생님의 교수 능력 부족	1	2.3
기타	9	20.9
계	43	100.0

수업에서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표 23>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문항 중 수업시간의 부족과 교과서 내용의 과도한 분량은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업시간의 부족은 교사나 학생이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일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편성된 수업시수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또는 교육과정에서 배당된 수업시수가 자체가 적은 것을 의미하며, 교과서 내용의 과도한 분량은 수업 시간은 부족하다 느끼지 않으나 교과서 자체에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 17명(39.5%)의 교사가 수업시간의 부족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교과서 내용의 과도한 분량이 10명(23.3%), 학생들의 능력 부족이 6명(14.0%)이었다. 선생님의 교수 능력 부족에도 1명(2.3%)이 답하였는데 ‘서양음악을 주로 다루었기에 국악 부분에서 능력의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였다.

다른 질문보다 기타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수업시간에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룬다’가 1명이었고 ‘관련학습과 연관지어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위하여’, ‘학습 수준을 학생에게 맞추고 타 교과에서 편찬된 내용을 삽입하는 융통성 때문에’, ‘학생들이 체험하지 못한 음악을 여러 계통으로 관련 교과와 연관시켜 다양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 외적인 것과 관련시키기 위해서’, ‘교과서의 내용과 교과서 아닌 내용을 관련시켜 다루기 위해서’와 같이 교과서 내용과 교과서 외적인 내용과 관련시키기 위해 수업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다는 의견이 5명이었다. 또한 ‘악곡의 다양성 부족과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학습 목표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교과서의 내용 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와 같이 교과서 내용 자체의 불만족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다 다루지 않는다는 의견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수업 이외의 내용을 다루는 주된 방법

구분	빈도(명)	백분율(%)
요약, 정리된 자료로 제시	16	37.2
숙제로 학생들에게 부과	3	7.0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유도	11	25.6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	13	30.2
기타	0	0
계	43	100.0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할시 수업 이외의 내용을 다루는 주된 방법에 대해서 <표 24>와 같이 ‘요약 정리된 자료로 제시’가 16명(37.2%),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이 13명(30.2%),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유도’가 11명(25.6%), ‘숙제로 학생들에게 부과’가 3명(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 외에 활용하는 교수·학습 자료

구분	빈도(명)	백분율(%)
다른 출판사의 음악교과서	7	12.7
인터넷, 시청각 자료	41	74.5
교사용 지도서	3	5.5
학생용 참고서 및 지도서	3	5.5
기타	1	1.8
계	55	100.0

음악과는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다. 음악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체는 단순한 악보에서부터 녹음기,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 외에 활용하는 교수·학습 자료에 대해서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표 25>와 같다. 인터넷과 시청각 자료가 41명

(74.5%), 다른 출판사의 음악교과서가 7명(12.7%), 교사용 지도서가 3명(5.5%), 학생용 참고서 및 지도서가 3명(5.5%), 기타 의견으로 ‘악보나, 그림, 사진 등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활용한다’가 1명(1.8%)으로 나타났다. 학생용 참고서 및 지도서의 사용은 경력 20년 이상에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생들의 학습동기, 흥미유발을 위해서	17	39.5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15	34.9
교과서 내용의 심화, 보충을 위해서	2	4.7
교과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8	18.6
기타	1	2.3
계	43	100.0

학습에 있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목적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즉,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자 함과, 학습자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 내용을 습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표 26>과 같이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학습동기, 흥미 유발을 위해서’가 17명(39.5%)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가 15명(34.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8명(18.6%), ‘교과서 내용의 심화, 보충을 위해서’가 2명(4.7%)이었고 기타 의견에는 ‘꼭 교과서 내용이라기 보다는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라고 1명(2.3%)이 답하였다.

<표 27> 교과서 내용의 주된 지도 순서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과서의 단원 순서대로 지도	3	7.0
순서와 상관없이 필요 단원별로 지도	16	37.2
단원과 상관없이 필요 영역별로 지도	18	41.9
동료 교사와의 협의하에 지도	6	14.0
기타	0	0.0
계	43	100.0

현재 음악교과서는 하나의 제재곡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활동 영역이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제시된 단원 형태를 띄고 있다. 교과서 내용의 주된 지도 순서에 대해서 <표 27>과 같이 단원과 상관없이 필요 영역별로 지도(18명, 41.9%), 순서와 상관없이 필요 단원별로 지도(16명, 37.2%), 동료 교사와의 협의하에 지도(6명, 14.0%), 교과서의 단원 순서대로 지도(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교과서의 순서대로 지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고려해서	9	20.9
학습 지도 방법과 교재 등을 고려해서	14	32.6
단원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해서	15	34.9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2	4.7
기타	3	7.0
계	43	100.0

교과서를 순서대로 지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단원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해서’가 15명(34.9%)이었으며, ‘학습 지도 방법과 교재 등을 고려해서’가 14명(32.6%),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을 고려해서’가 9명(20.9%),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가 2명(4.7%)으로 나타났다. 기타 3명(7.0%)의 의견은 1명이 ‘교과서 순서대로 지도’였으며, 2명이 ‘수행평가 등을 고려해서

교사가 정한 수업 내용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먼저 가르친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보통 실기시험이나 이론시험을 먼저 고려해서 지도’로 학사 일정에 맞추느라 교과서를 순서대로 지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제재곡 채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생들의 수준	13	30.2
학생들의 흥미	20	46.5
제재곡의 인지도	6	14.0
지도의 수월성	0	0.0
기타	4	9.3
계	43	100.0

제재곡을 채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에 대해서 <표 29>와 같이 ‘학생들의 흥미’(20명, 46.5%), ‘학생들의 수준’(13명, 30.2%), ‘제재곡의 인지도’(6명, 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4명, 9.3%) 의견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적 필요성에 따라, 이해영역이나 활동영역의 설명 필요성에 따라, 시험과 관련하여 동료들과의 협의에 따라 제재곡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주된 기준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과서 학습 목표에 따라 정함	25	58.1
교사 임의로 학습 목표를 정함	16	37.2
학습목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음	2	4.7
수업 보조 자료에 따라서 정함	0	0.0
기타	0	0.0
계	43	100.0

수업시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주된 기준에 대해서 <표 30>과 같이 ‘교과서 학습 목표에 따라 정함’이 25명(58.1%)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임의로

학습 목표를 정함'이 16명(37.2%)으로 나타났다. '학습 목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음'이 2명(4.7%)으로 이들은 모두 40대의 경력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곡의 목표 제시는 제재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학습에 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그것이 앞으로 전개될 학습의 방향을 예측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학습 활동의 의도를 파악하고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제재 목표의 제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³⁶⁾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음악교과서에는 제재마다 두, 세 항목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꼭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학습목표를 통하여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학생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교과서의 평가

다음 <표 31>은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로서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방법, 표현·표기, 편집 및 외형 체제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들의 평가를 통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과서의 편찬방향, 검정 기준 등이 현재의 교과서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36)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출판사, 1992, p.31.

<표 31>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에 대한 평가

문항	통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매우 많다	많다		적다	매우 적다
		매우 높다	높다		낮다	매우 낮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는가?	빈도 (명)	0	20	21	2	0
	백분율 (%)	0.0	46.5	48.8	4.7	0.0
교과서의 분량 및 내용은 수업시수에 적절한가?	빈도 (명)	0	9	17	13	4
	백분율 (%)	0.0	20.9	39.5	30.2	9.3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의 수준은?	빈도 (명)	0	15	22	5	1
	백분율 (%)	0.0	34.9	51.2	11.6	2.3
다양한 학습 활동과 평가 방법이 수록되어 있는가?	빈도 (명)	0	7	20	15	1
	백분율 (%)	0.0	16.3	46.5	34.9	2.3
학습의 목표, 활동, 평가는 서로 관련성을 가져 학습효과를 높이는가?	빈도 (명)	0	17	20	6	0
	백분율 (%)	0.0	39.5	46.5	14.0	0.0
교과서의 이해영역과 활동영역의 연계 정도는? ·이해: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셉텨럼, 빠르기, 음색 ·활동: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	빈도 (명)	0	20	20	3	0
	백분율 (%)	0.0	46.5	46.5	7.0	0.0
제재곡은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인가?	빈도 (명)	0	22	15	5	1
	백분율 (%)	0.0	51.2	34.9	11.6	2.3
제재곡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흥미를 고려하는가?	빈도 (명)	0	5	24	11	3
	백분율 (%)	0.0	11.6	55.8	25.6	7.0
가창 제재곡은 변성기 학생의 음높이를 고려하는가?	빈도 (명)	1	12	15	13	2
	백분율 (%)	2.3	27.9	34.9	30.2	4.7

가창 형태는 다양한가? ·제창, 2부합창, 돌림노래, 기악합주 등	빈도 (명)	0	15	18	9	1
	백분율 (%)	0.0	34.9	41.9	20.9	2.3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음악이 수록되어 있는가?	빈도 (명)	1	10	20	12	0
	백분율 (%)	2.3	23.3	46.5	27.9	0.0
교과서의 전통 음악 비중은?	빈도 (명)	1	22	17	2	1
	백분율 (%)	2.3	51.2	39.5	4.7	2.3
교과서의 내용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는가?	빈도 (명)	1	7	16	14	5
	백분율 (%)	2.3	16.3	37.2	32.6	11.6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 자료의 활용을 제시하는가?	빈도 (명)	2	7	16	15	3
	백분율 (%)	4.7	16.3	37.2	34.9	7.0
교과서의 내용은 오류없이 정확한가?	빈도 (명)	2	14	16	9	2
	백분율 (%)	4.7	32.6	37.2	20.9	4.7
각 학년간의 연계 정도는?	빈도 (명)	3	12	21	6	1
	백분율 (%)	7.0	27.9	48.8	14.0	2.3
타 교과와 실생활에 연계할 수 있는 경험의 수록 정도는?	빈도 (명)	1	3	17	17	5
	백분율 (%)	2.3	7.0	39.5	39.5	11.6
외형적인 체제가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화면구성, 시각요소, 종이질, 글씨체 등	빈도 (명)	1	6	24	9	3
	백분율 (%)	2.3	14.0	55.8	20.9	7.0
악보는 선명하며 눈에 잘 띄는가?	빈도 (명)	6	22	10	4	1
	백분율 (%)	14.0	51.2	23.3	9.3	2.3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총 41명으로 교과서가 비교적 검정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음악 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미래의 음악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³⁷⁾ 교육과정을 실제화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교과서라고 본다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연계를 갖추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제시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도 내용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경험과 활동 등이 연계를 이루도록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분량 및 내용이 수업 시수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렇다’는 9명인 반면, ‘아니다’와 ‘매우아니다’에 17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과서의 활용에서 수업시 교과서의 내용을 다 다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27명의 교사가 수업시간의 부족과 교과서 내용의 과도한 분량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편성된 연간 수업시간 수는 중학교 1학년이 68시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34시간이다. 교과서 편찬에 앞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내용이 총론에 제시된 해당 수업 시간에 적절한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수업시수에 맞는 최소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활동이 가능한 내용들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을 반영한다. 그 내용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교과서 수록 내용의 수준에 대해서 ‘높다’와 ‘보통이다’에 37명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점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지도 내용 중에 학년별로 수준과 조건상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많아 교과서의 저자에 따라 지도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⁸⁾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은 각 학년별 도달해야

37) 이홍수, 전계서, 1990, p.205.

38) 이홍수, 전계서, 2004, p.273.

할 수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맞추어 교과서는 학년별로 연계성, 일관성을 갖되, 각 학년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상황들에 맞는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그 내용이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제재곡을 수준과 난이도에 따라 구분해 놓음으로써 교과서 집필시 학년을 고려한 적절한 악곡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다양한 학습 활동’과 ‘타당성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학습 활동과 평가 방법이 수록정도에 대해서 ‘그렇다’에 7명 밖에 답하지 않았으며, 16명이 ‘아니다’와 ‘매우아니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음악교과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교수·학습 과정, 즉, 학습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학습 활동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이 의미있게 되려면 음악 자체를 위주로 하는 활동 중심의 음악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활동 중심의 ‘음악하기’는 학생의 음악적인 이해와 연주 능력을 신장시킬 뿐 아니라 창의성, 주도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과서는 다양한, 또 타당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과서의 학습 평가는 교과 교육의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며, 동시에 교과서의 지도 계획과 그 전개 과정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를 알아보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³⁹⁾ 음악과의 경우 음악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방법의 제시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는, 즉 학생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전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타당한 평가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들이 학습자에게 정착되는데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39) 이홍수, 전제서, 1990, p.279.

교과 지도의 목표를 진술하는 일과 지도 내용을 조직하는 일, 목표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일,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 내용 및 방법을 보완하는 일 등은 학습 지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들이다. 학습의 목표, 활동, 평가는 서로 관련성을 가져 학습 효과를 높이는가에 긍정(17명)과 보통(20명)의 답변이 85% 이상으로 비교적 관련성을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활동은 선정된 내용을 학습자의 학습 능력, 학습 심리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는 학습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활동의 결과와 함께 과정도 평가하여야 한다. 교과서는 각 단계들이 연계하여 짜임새 있는 하나의 완결된 구성을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이해영역과 활동영역의 연계 정도에 대해서 ‘높다’와 ‘보통이다’에 40명이 답했으며, ‘낮다’에는 3명밖에 답하지 않아 연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제시된 지도 내용 중 ‘이해’ 부분의 내용이 과다하고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으며, ‘활동’ 부분은 습득할 기능과 행위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음악과를 ‘음악 이론의 지적 이해’와 ‘음악 활동 및 기능 습득’에 중점을 두는 음악예능교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⁴⁰⁾ 그동안의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중의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해 따로, 활동 따로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 개념의 이해를 위하여 실음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재곡이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그렇다’가 22명으로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 전문가들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제재별 목표와 차시별 목표에 관해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

40) 이홍수, 전계서, 2004, p.268.

요하지만, 그러한 목표 설정에 관련해서 그보다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 교과서에 수록할 제재곡을 먼저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 제재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공해야 할 체험 및 지도해야 할 내용의 선정과 함께 제재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교재곡을 선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내용 및 체험의 다양성과 균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음악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음악적 감지력과 음악미적 통찰력, 음악적 기능과 창의적인 음악 표현력을 향상시키며,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애호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마음을 기르고자 하는 교과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 목표와 학년 목표에 따라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감성적 발달 수준에 알맞은 체험과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선정 조직된 내용과 체험에 따라 제재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그 다음에 제재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주교재곡과 부수적으로 사용될 교재곡들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⁴¹⁾

제재곡은 학생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가 5명인데 반해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과서의 편찬지침에서는 제재 악곡이 하나의 단원을 구성하여 그 내용이 학습 목표, 학습 활동, 학습 평가 등으로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충이나 심화 학습을 위한 다양한 악곡, 학습 자료를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재곡 중심의 교과서 구성은 제재곡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고 있는 제재곡의 선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제재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학습자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 단계,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 시대

41) 이홍수, 전계서, 1992, pp.34-35.

적·문화적 필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창 제재곡은 변성기 학생의 음높이를 고려하는가에 대해서 긍정(13명), 보통(15명), 부정(15명)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천재교육’ 음악교과서의 경우 똑같은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매우그렇다’와 ‘매우아니다’의 평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음악 수업에 있어 활동 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창영역이다. 이것은 다른 영역과 달리 어떠한 준비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음악교과서에서도 가창 제재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가창 제재곡을 선정할 때에는 이 시기의 학생들이 변성기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제재곡의 음역과 난이도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의 <표 32>는 교사의 전공에 따른 분류로서 성악을 전공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전공별 인원의 분포가 고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성악 전공의 교사들이 ‘가창 제재곡은 변성기 학생의 음높이를 고려하는가’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교사의 전공에 따른 제재곡의 음높이에 대한 평가

	기악 22명		성악 16명		작곡 5명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매우그렇다	1	4.5	0	0.0	0	0.0
그렇다	8	36.4	4	25.0	0	0.0
보통이다	7	31.8	4	25.0	4	80.0
아니다	5	22.7	7	43.8	1	20.0
매우아니다	1	4.5	1	6.3	0	0.0

가창 형태의 다양정도에 대해서 긍정(15명)과 보통(18명)의 답변이 많았으나 ‘매우아니다’에도 1명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창, 중창, 돌림노래, 기악합주 등은 여러사람이 모여 하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기에 전체의 협조를 통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특징을 가진다. 교과서에서 또한 실제 음악 수업에서 가창 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창 형태를 접하게 함으로써 심미적인 태도, 음악적인 사고, 음악적 창의성, 음악적 표현력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다. 제창을 위한 제재곡 뿐 아니라 합주 활동을 위한 학생 수준과 흥미에 맞게 편곡된 곡의 제시가 필요하다.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음악 수록에 대해서 긍정(11명)과 부정(12명)의 답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경우 제재 악곡 중 민요만 보더라도, 과거 교과서에서는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서방 선진국 민요를 위주로 편중되어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이념적 차이로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던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국가인 터키, 잠비아, 이스라엘 등의 민요도 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시된 악곡의 시대를 살펴보면, 한국 전통 음악의 풍으로 현대 작곡된 다양한 창작 전통음악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대중음악, 서양의 대중음악, 그리고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세 음악도 나타나고 있다.⁴²⁾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고곡 정도로만 나열되어 있다면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은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고 인식을 못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 또한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내용들이 실제 수업에서 활용될만한 구성형태를 갖추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2) 양종모, 중학교 1학년 2종 교과서의 특징, 「교과서 연구」, 2001, p.38.

교과서의 전통 음악 비중에 대해서 ‘많다’와 ‘매우 많다’가 23명으로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재교육’ 음악교과서의 경우 ‘매우 많다’와 ‘매우 적다’의 평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 국악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교과서에 비해 전통음악의 비중은 상당히 많아졌다. 앞서 조사에서 교사의 전공은 모두 서양음악이었으며, 또한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소수의 견이지만 서양음악 전공이기에 국악 관련 부분에서 교수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었다. 교과서에 전통 음악의 비중이 높아졌어도 교사들이 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면, 또는 단편적으로만 다룬다면 소용이 없다. 무조건적으로 전통음악의 비중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인지 난이도를 고려하여 또한 학년별로 내용의 연계를 이루어 정말 가르치기 위한 내용들로, 전 영역의 내용을 고루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도록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이 시대변화를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가 19명으로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며 세계화 시대이다. 재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모습이나 내용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전자교과서⁴³⁾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이다. 교과서의 내용은 그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목적은 집필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앞의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우리 후손의 음악 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적어도 30년 앞의 음악적 안목을 갖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43) 전자 교과서: 문자를 전자매체에 옮겨놓은 전자책자(e-book) 수준이 아니라 인터넷 웹사이트나 PDA로 교과서 내용을 학습하고, 학생 스스로 배운 내용을 편집,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별 학습, 평가까지 가능한 교과서

적성에 맞는,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음악적 자료의 선택이 요구되어진다.

교과서가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 자료의 활용을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아니다’와 ‘매우아니다’이 18명으로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멀티미디어는 컴퓨터를 통해 컴퓨터 화면,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 CD-ROM, 디스크, 사운드 및 오디오, 신디사이저 등의 다양한 전자 미디어들이 영상 기술, 오디오 기술, 컴퓨터 하드웨어 상기 등의 다양한 전자 매체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디지털 음악기기, 통신의 발전은 학교, 심지어 나라의 영역을 뛰어 넘어 학습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 학생의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 음악 학습을 개별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전자악기, CD, Video, CD-ROM, MIDI 등으로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고 듣는 활동을 제시하여 음악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은 오류없이 정확한가에 대해서 긍정(16명)과 보통(16명), 부정(11명)의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서 교과서 활용부분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소수이지만 ‘오류없는 내용의 정확성’을 가장 고려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교과서는 공적인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선정시 오류나 편향적인 이론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악보, 작곡가, 작사가, 음악 용어, 지시어 등의 오류는 없는지, 그 표현과 표기에 있어 맞춤법 외래어 표기는 정확한지, 삽화, 도표, 통계 등의 자료는 신빙성이 있고 적절한지 등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각 학년간의 연계 정도에 대해서 긍정(15명)과 보통(21명)의 답변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과서의 경우 검정도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출판사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9종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경우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제재곡은 한 곡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문대상의 24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1

학년과 2·3학년이 각기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학년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연계정도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년별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한국 음악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 교과서의 ‘음악 영역 내용’ 개발팀과, 초등학교 3-6학년 음악교과서 개발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저자들과 의사소통이나 논의의 기회를 가지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계 교과 및 과목들 간 또는 학교급 간의 내용 체계상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⁴⁴⁾ 음악 교육의 연계성을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집필진 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도달할 수준과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학년별 위계성, 연계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타 교과와 실생활에 연계할 수 있는 경험의 수록 정도에 대해서 ‘적다’와 ‘매우적다’가 22명으로 교과서에 대한 평가 중 부정적인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천재교육’ 음악교과서의 경우 ‘매우 많다’와 ‘매우 적다’의 평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과서의 채택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볼 때 가장 고려하는 점’에 대해서 ‘생활과 연계된 내용의 실용성’에 7명이 응답했으며 또한 ‘수업시 교과서의 순서대로 지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에 2명이 응답했었다. 학습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학습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교과서는 그 내용에서 학생들의 실생활 중심의 사례와, 경험, 또한 타교과와의 연계된 경험들을 제공해야 한다. 교과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음악미적인 능력, 생활에서의 음악을 향유하는 능력 뿐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44) 이홍수, 전계서, 2004, p.271.

되어야 할 것이다.

외형적인 체제가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통(24명)의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아니다’와 ‘매우아니다’에도 12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과서의 경우 수학이나, 국어 교과서와는 달리 인간의 정감적 영역의 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한 교재이기에 교과서 자체가 주는 외형적 요소가 심미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예술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차원의 교과서이어야 한다.⁴⁵⁾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외형체제의 개선과, 규제의 완화로 과거의 교과서 보다는 그 수준이 높아졌으나, 인쇄와 출판문화의 발달로 학생들이 접하는 다른 도서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외형체제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풍부한 자료들을 접하며 자라나는 학생들 세대의 취향에 부합되는, 사용하기 편리하며 학습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외형체제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악보는 선명하며 눈에 잘 띄는가에 대해서 긍정(28명)의 답변이 보통(10명), 부정(5명)의 답변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천재교육’ 음악교과서의 경우 ‘매우많다’와 ‘매우적다’의 평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되는 음악교과서는 거의 구성적 측면에서 1면에 제재악곡이, 2면에 학습 활동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재악곡의 대부분은 주로 가창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에서 가독성 즉, 얼마만큼 눈에 잘 읽혀서 학습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하다면 음악교과서의 경우 악보가 얼마만큼 선명하여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 가창 활동에 도움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교과서에 실리는 악보들은 눈에 잘 띄고, 선명한가와 같은 외형체제 뿐 아니라 그 내용의 정확성까지 같이 고려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5) 장기범, 「현행 중학교 2종 교과서 평가」 서울, 한국 2종교과서협회, 1990, p.4.

IV. 결론 및 제언

교과서는 교수·학습 과정의 방향과 내용을 선도하는 교수매체로써 교실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음악과목에도 해당된다.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교육현실에서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교과서는 그에 상응하는 완전성을 보유해야 하며,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과서 개선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음악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의 음악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었으며,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사용해본 교과서의 현황과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의 현황에서 두산, 세광음악출판사의 음악교과서 빈도가 나머지 7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교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음악교과서를 의미한다.

둘째,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정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교과서 내용자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지도서 및 부록교재의 활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면 여러 교과서 선정 기준 중에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내용인지, 구성이나 설명 방법은 독창성이 있는지를, 교과서의 외형체제면에 있어서는 화면 구성은 어떠한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에 가까운 교사들은 앞으로의 교과서 지향목표를 실천적인 ‘음악하기’ 중심의 교과서라고 답하였는데, 교사들의 주된 교과서 선정 기준, 교과서 지향 목표는 곧 교과서의 바람직한 집필 방향에 부합되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은 필요에 따라 교과서의 지도 순서나, 지도 내용을 선택하며, 다른 교수·학습자료, 특히 인터넷과 시청각 자료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시간과 교과서 수록 내용의 분량은 수업에서 교과서를 다루는 비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가 교수·학습 자료로서 실제 수업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교사들은 교과서 활용에 있어 열린 교과서관으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사용중인 중학교 9종 음악교과서 중 도서출판태성을 제외한 8종의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 정도는 대략 50-90%로 볼 수 있으며, 교과서 검정 기준(교육과정의 준수,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방법, 표현·표기, 편집 및 외형 체제, 독창성)에 근거하면, 8종의 교과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이므로 교사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으며 주로 '보통이다'의 평가가 많아, 한 문항에 대하여 적게는 10명(23.3%), 많게는 24명(55.8%)까지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의 의견이 50%인 것은, 교과서의 전통 음악 비중이 많다는 것과, 타교과나 실생활에 연계할 수 있는 경험의 수록이 적다는 것이다. 각 문항들에 대한 교사들의 이러한 평가를 종합하면 현재의 교과서는 검정 기준에서 요구하는 교과서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과 관련하여 앞으로 음악교과서의 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과 분량, 수업시수는 실제 수업에서 교과서의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제작된다. 좋은 교과서가 제작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이 각 학급별에 적절한, 또한 주어진 시수에 적절한 목표, 배워야 할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까지 국가나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 교사들은 열린 교과서관으로 지도 내용, 순서 등에서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교과서는 가창 제재곡 중심의 일률적인 구성, 내용으로 되어있어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각 영역별, 주제별, 통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재곡 중심의 교과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단원 재구성이 가능한 융통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경우 검정도서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나 검정기준이 집필자의 재량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음악교육에서 교과서를 다루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을 결정지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에 있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과서 집필진 간의 논의를 통하여 각 학년에서 배워야 할 내용의 수준과 난이도, 구체적 제재곡 등이 학습자의 심리적, 신체적, 음악적 측면을 고려하여 위계를 갖추어 각 학년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과의 연계를 갖고 있어 학교에서의 음악교육 이후에도 음악 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는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좋은 교과서가 개발되어도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과서의 재구성은 계속 요구되어진다. 교과서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있었다. 조사대상자가 모두 서양음악 전공자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교사들의 50% 이상은 교과서에 국악의 비중이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소수의 의견이긴 하나 서양음악을 전공했으므로 국악 부분에서 교수능력 부족을 느낀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 연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서 내용과 관련되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터넷,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교수·학습 자료가 교과서와 같이 제시됨으로써 교사들의 교과서 재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교육부. 2000. 「교과서 백서」 서울: 교육부.
- _____. 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IV)」 서울: 교육부.
- 교육학 사전 편찬위원회. 1972. 「교육학 대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 권덕원 외 3인. 2005. 「음악 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杉山正一 외. 1990. 「교과서 활용이 훌륭한 교사」 보이스사 편집부 옮김.
서울: 보이스사.
-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출판사.
- _____.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한국교육개발원. 1979. 「교과서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4. 「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서울: 교육과정평가원.
- _____. 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교과용도서 검정 편람(개정)」 서울: 교육과정평가원
- 허강. 2004.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서울: 일진사.

2. 학위논문

- 김용화. 1990.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연. 2000.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 활용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경자. 1999. 「교과서정책의 비교와 변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3. 논문 및 학술지

- 곽병선, 이해영. 1986.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대원. 2000.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시·도 교과요원 연수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두정. 1995. 교과서 .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방안; 시각. 현황. 과제.
「교육과정연구」 서울: 한국교육학회교육과정연구회.
- 김종서. 1980. 「교과서 제도에 관한 외국 제도와 우리 제도의 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연수 외. 2002.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평가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장기범. 1990. 「현행 중학교 2종 교과서 평가」 서울. 한국 2종교과서협회.

4. 잡지

- 김재복. 1987.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개발」 49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배종수. 2002. 좋은 교과서의 조건들. 「교과서연구」 39호.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 백명진 외. 1998.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 양종모. 2001. 중학교 1학년 2종 교과서의 특징. 「교과서 연구」
- 이홍수. 2004. 음악과 교과용 도서 개발 현황 및 개선 방안 .
「교원교육」 제19권 2호. 한국교원대학교교육연구지.
- 함수곤. 2002. 새로운 교과서의 기능. 「교과서연구」 39호.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realities of applying text book
of middle school music teachers.**

Kim, Ju Young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music textbooks in middle school to make an advanced method of music instruction in the future. A survey of selected middle school music teachers in Seoul was made with an analysis of individual perception and actual application of textbooks. Additionally,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and process of selection and evaluation of textbooks were examin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in substance as follows.

First, textbooks of Doo-San and Se-Kwang have been preferred by teachers after carrying out 7th Music & Education curriculum. Both were listed in the order of frequency in use.

Second, data was collected provided clear evidence that the most considered factor is the content when teachers make a choice of textbook and pertinence, originality, and constitution were referred in

terms of criteria.

Third, teachers used to recompose textbooks for the student's better understanding and course management even though textbooks still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class.

Fourth, teachers' level of satisfaction about music textbooks except Tae-Sung was within the range from fifty to ninety percent. Their opinion has been scattered rather than concentrated. However, we have shown that current textbooks did not sufficiently reflect those requirements of prescribed guidance of authorized textbooks.

From this investig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followings should be carefully deliberated to make a better music education.

Firstly, systematic and interesting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to give rise to student's enthusiasm. When it comes to creativity of textbooks, cooperation of the author and publisher is indispensable to improvement. Secondly, teacher's new angle is necessarily needed to improve current music textbooks and it is only feasible with their considerate advic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Finally, all related parties suggestions should be scrutinized with extraordinary care with constructive mind to increas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music textbooks.

- ③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과서 ④융통성 있는 체재의 교과서
⑤기타_____

12. 교과서의 외형체제 중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은?

- ①글씨체, 가독성 ②페이지의 화면구성
③색채, 색감의 시각요소 ④종이질
⑤기타_____

13. 수업시 교과서 내용을 다루는 비중은?

- ①30%미만 ②30-50%미만 ③50-70%미만 ④70-90%미만 ⑤90-100%

14.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 ①수업 시간의 부족 ②교과서 내용의 과도한 분량
③학생들의 학습 능력 부족 ④선생님의 교수 능력 부족
⑤기타_____

15.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할시 수업 이외의 내용을 다루는 주된 방법은?

- ①요약, 정리된 자료로 제시 ②숙제로 학생들에게 부과
③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유도 ④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
⑤기타_____

16.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 외에 활용하는 교수-학습 자료는? (복수 선택 가능)

- ①다른 출판사의 교과서 ②인터넷, 시청각 자료
③교사용 지도서 ④학생용 참고서 및 문제집
⑤기타_____

17.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 ①학생들의 학습동기, 흥미유발을 위해서 ②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③교과서 내용의 심화, 보충을 위해서 ④교과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⑤기타_____

18. 교과서 내용의 주된 지도 순서는?

- ①교과서의 단원 순서대로 지도 ②순서와 상관없이 필요 단원별로 지도
③단원과 상관없이 필요 영역별로 지도 ④동료 교사와의 협의하에 지도
⑤기타_____

19. 교과서의 순서대로 지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 ①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고려해서 ②학습 지도 방법과 교재 등을 고려해서
③단원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해서 ④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⑤기타_____

20. 제재곡 채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 ①학생들의 수준 ②학생들의 흥미
③제재곡의 인지도 ④지도의 수월성

